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17



Contents

※ 2026.2.12.(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2.05.~2026.02.11.)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국제 통상 질서 급변에 따른 탄소중립·수출입 기업 지원 총력 (2026.02.11) 1
- 충청남도, 대산석유화학단지에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 개소 (2026.02.11) 1
- 경기도 중부권 행정협의회, GTX-C·탄소중립 교육 등 공동 대응 논의 (2026.02.11) 2
- 대구시, GCoM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입증 (2026.02.11) 2
- 김해시, 설맞이 탄소중립 체험형 환경 프로그램 운영 (2026.02.11) 2
-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위, 약 1년 5개월간 활동 마무리 (2026.02.11) 3
- 고성군, '친환경 농업'으로 탄소중립 시대 정면 돌파 (2026.02.11) 3
- 당진시, 탄소중립시대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그린스틸 클러스터 추진 (2026.02.10) 4
- 인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문가 컨설팅 실시 (2026.02.10) 4
- 해남군, 전국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2026.02.10) 4
- 경남도, 2026년 수소전기차 318억 원 투입 보급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2026.02.10) .. 5
- 인천시 기초단체 탄소중립 이행 계획, 전반적 '미흡' 평가 (2026.02.09) 5
- 부산 영도구, 전국 탄소중립 계획 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2026.02.09) 6
- 구례군, '2026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준비 본격화 (2026.02.09) 6
- 인제군, 전기차 181대 보조금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 추진 (2026.02.09) 6

- 충남도, 노인일자리 연계 자원순환 활성화 협약으로 탄소중립 기여 (2026.02.09) 7
- 해남군 '탄소중립 에듀센터' 하반기 착공, 총 389억 원 투입 (2026.02.09) 7
- 수원시의회, 탄소중립 추진 등 시민 생활 관련 조례안 본회의 가결 (2026.02.09) 8
- 양주시, '30만 시민 1인 1나무 심기운동' 본격 추진 (2026.02.05) 8
- 대전 대덕구, 지역에너지센터를 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로 명칭 변경 (2026.02.05) 8
- 파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 상시 모집 (2026.02.06) 9

■ AI 분야 9

- 고용부 차관, AI 산업 전환 과정에서 구조조정·인력·규정 문제 동시 발생 진단 (2026.02.06) 9
-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워싱턴서 첨단기술·AI 협력 강화 논의 (2026.02.05) 10
- AI가 전문직·IT 일자리 위협, 통계로 확인되는 현실 (2026.02.11) 10
- 경기도 AI국, 의회 보고자료 오류 불인정 및 절차 위반으로 질타 (2026.02.09) 11
- 지방 활성화 위해 AI·자율주행 등 '규제 프리존' 설치 제안 (2026.02.06) 11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2

■ 탄소중립 분야 12

- 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기간 부족 및 졸속 우려 제기 (2026.02.11) 12
- 월악산국립공원, 유아 대상 어린이 숲학교 운영 (2026.02.06) 12
- 중진공,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6.02.10) ..13
- 서울시교육청, 전 학교 '2026 탄소중립 실천' 추진 및 자가진단 도구 도입 (2026.02.08) ·13

- AI 분야 13
 - 금융위, 설 연휴 AI 음성 변조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발표 (2026.02.10) 14
 - 한국거래소, 창사 이래 첫 AI 스타트업 '페어랩스' 인수 (2026.02.10) 14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5

- 탄소중립 분야 15
 - 한수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년 연속 수상 (2026.02.10) 15
 - 동반성장위원회, 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3년 연장 (2026.02.09) 15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 3주 남기고 공론화 본격 시동 (2026.02.07) 16
 - 전국 기초지자체 40%, 탄소중립기본계획 '낙제점' 평가 (2026.02.05) 16

- AI 분야 16
 - 하나은행, ESG 인증 AI·SW기업 대상 최대 2% 우대금리 대출 출시 (2026.02.11) 17
 - 디플리, 효성전기에 음향 AI 솔루션 '리슨AI' 공급 (2026.02.10) 17
 - 농협은행장, 디지털·AI 혁신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강조 (2026.02.06) 17
 - 대구대, 전교생 대상 유료 생성형 AI 무상 이용 'AI 통합 플랫폼' 도입 (2026.02.10) · 18
 - 청주대 RISE사업단, '2026 AI 신기술 콘텐츠 컨퍼런스' 성료 (2026.02.06) 18
 - 생성형 AI 유료 구독자 2년 만에 5배 이상 증가 (2026.02.08) 19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중앙부처</p>	<p>☐ 국제 통상 질서 급변에 따른 탄소중립·수출입 기업 지원 총력 (2026.0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EU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세부지원계획 종합 및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함. - CBAM 본격 시행에 따라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6건, 탄소배출량 감축 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4건 등 총 15개 사안 지원 결정.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설비 투자 지원, 합동 설명회 및 실습 등 구체적 지원 추진 계획. - 관세청은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개선 조치를 6월 26일부터 시행 예정.
<p>지자체</p>	<p>☐ 충남도,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 개소 (2026.0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탄소중립 실증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 실증 및 산업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 운영에 돌입. 전형식 정무부지사 등 300여명 참석. - 센터는 국비·지방비·민간 자본 등 총 485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구축되었으며, 탄소 포집부터 전환·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CCU 시험장으로 운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관. - 이산화탄소를 연료·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실증과 산업 공정 적용·확산에 중점을 두며, CCU 소재·제품 시험·분석·평가, 기술 개발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을 주요 역할로 수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경기도 중부권 행정협의회, GTX-C·탄소중립 교육 등 공동 대응 논의 (2026.0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 이민근 시장이 주재한 제9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개최. 안양·군포·과천·광명·의왕 등 6개 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50여 명 참석. - GTX-C노선 원인자부담 사업비 지원,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운영·평가 기준 마련 등 5건의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 - 안산시의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 발급', 광명시의 '광명상생플랫폼', 의왕시의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등 각 시의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며 회원 도시 간 정책 교류와 협력 확대.
	<p>□ 대구시, GCoM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입증 (2026.0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가 세계 최대 지방정부 기후행동 협력체인 GCoM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도시로 선정되어 최고 등급인 '준수(Compliant)' 인증서를 수여받음. '2026 이클레이 한국 지방정부 정기회의'에서 공식 인증. - GCoM은 전 세계 144개국 1만 3천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 대구시는 배출권거래제 모범 운영과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약 600억 원 세입 창출. -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탄소줄이기 1110' 캠페인 확산 등 체계적 정책 추진과 시민 참여 병행 노력이 국제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
	<p>□ 김해시, 설맞이 탄소중립 체험형 환경 프로그램 운영 (2026.0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시가 설 명절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대상 탄소중립 실천 체험형 프로그램을 2월 한 달간 탄소중립체험관과 기후변화테마공원에서 운영. 전통놀이와 업사이클링을 접목한 놀이 중심 환경교육 진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체험관에서는 유아 대상 '설맞이 에코그린놀이터'와 가족 참여 업사이클링 장난감 만들기 체험, 'NEW탄소중립 미션 레이스' 등을 운영. 기후변화테마공원에서는 커피박 활용 설거지바 만들기 등 제로웨이스트 체험 실시. - 자투리 공방을 통한 자원 재사용 체험도 제공하며, 시민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탄소중립 교육의 지속적 확대 방침.
	<p>□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위, 약 1년 5개월간 활동 마무리 (2026.0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약 1년 5개월간 공식 활동을 마무리. 2024년 8월 구성 이후 총 6차례 회의, 간담회, 전문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방향성과 실행 기반 점검. -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및 '아산시 기후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 입법 성과 도출. 전 부서 대상 탄소중립 관련 업무보고 실시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시정 전반의 과제로 인식 확산. - 김미영 위원장은 탄소중립 정책을 의정활동의 주요 의제로 정립하고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정책으로 논의 확장의 기본 틀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 향후 의회 차원의 지속적 점검 계획 언급.
	<p>□ 고성군, '친환경 농업'으로 탄소중립 시대 정면 돌파 (2026.0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이 '고성형 농업 모델'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며, 경상남도 친환경 생태농업대상 단체 부문 3년 연속 대상 수상. 친환경 벼 재배단지 28개 단지 378ha, 38개 품목 친환경 인증 확대. - 2026년 총 41억 9000만 원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10억 5500만 원), 기반 구축(28억 원), 품질인증 및 생산 장려(3억 3600만 원) 등 3대 핵심 사업 추진. 농기계 도입 비용 50% 보조 등 실질적 농가 지원. -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안전분석실을 통한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강화. 생산 농산물은 학교 급식과 군 직영 쇼핑몰로 공급하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당진시, 탄소중립시대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그린스틸 클러스터 추진 (2026.0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진시가 2024년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계기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설정하고, 화력발전소와 철강산업 중심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EU CBAM 본격 시행과 미국 50% 관세부과 등에 대응. - 철강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K-스틸법 시행령 반영(저탄소철강특구 지정기준, 국가 인프라 국비 지원,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당진 그린스틸 클러스터 조성계획' 일반예타사업 등 3대 핵심 사업 추진. - 오성환 시장은 세 가지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중립·에너지전환·DX·AI전환 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대응을 강조.
	<p>□ 인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문가 컨설팅 실시 (2026.0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서구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38.7%) 달성을 위해 '2025년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컨설팅'을 실시. 한국환경공단 지원으로 전국 75개 지자체 중 방문 컨설팅 대상지로 선정. - 한국환경공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2025년 추진 96개 세부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신규·변경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5월 말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광역시에 제출 예정. -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사업 및 기후행동 1.5℃ 참여 활성화 등 주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홍보 컨설팅도 함께 진행. 13개 분야 사업 추진력 극대화 계획.
	<p>□ 해남군, 전국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2026.0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군이 녹색전환연구소의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에서 A등급을 획득. 전체 4.8%인 11곳만 해당하며, 전남 유일 및 군 단위 지자체 유일의 최고 등급.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33만 5천 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RE100산업단지, 탄소중립형 AI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탄소중립 에듀센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등 녹색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구축, 에너지 이익공유제 본격화, 저탄소 친환경 농·축·수산 확산, 해남형 ESG 캠페인 등 지역 맞춤형 감축 정책과 교육발전특구 연계 인재 양성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음.
	<p>□ 경남도, 2026년 수소전기차 318억 원 투입 보급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2026.0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가 국비 244억 원과 지방비 74억 원 등 총 318억 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390대, 수소버스 65대 등 총 455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계획. 승용차 대당 3310만 원, 시내버스 3억 원, 광역버스 3억 60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2016년부터 수소 모빌리티 보급에 앞장서 누적 3373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24개소 구축. 수소 충전 인프라와 수소차 등록 대수 모두 전국 2위 수준의 기반 확보. -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3개소 추가 구축하여 '시·군별 1개소 이상 충전소 운영'과 '도내 전역 30분 이내 충전소 접근 가능' 환경 조성으로 수소차 대중화 시대 견인 전략 추진.
	<p>□ 인천시 기초단체 탄소중립 이행 계획, 전반적 '미흡' 평가 (2026.02.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전환연구소의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 결과, 인천 10개 군·구 중 부평구만 B등급을 받고 나머지 9개 군·구는 모두 C등급에 머무름. 광역 단위 계획과 기초단체 계획 간 완성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 - C등급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계획은 제시되어 있으나 정책 수단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 예산 확보 미흡과 용어·기준 불일치 사례도 확인. -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 실현 선언에 따라 군·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단체들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 올해 처음 정부의 기초단체 이행 실적 점검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부산 영도구, 전국 탄소중립 계획 평가 최상위 A등급 획득 (2026.02.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도구가 녹색전환연구소의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에서 정량·정성 종합평가 65점 이상을 기록하며 최상위 A등급 획득. 전국 11곳(상위 4.8%)에 해당. -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젊은 해양도시 영도'를 비전으로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25년 '제1차 부산광역시 영도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국가 및 부산시 계획과 연계한 6개 부문 36개 감축 사업을 추진하며,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p>□ 구례군, '2026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준비 본격화 (2026.02.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군이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2026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 임원 선출과 소위원회 구성 등 주요 안건 논의. - 구례에서 시작된 흙의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농업과 연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한 추진 방향 수립. - 박람회는 올해 9월 중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 일원에서 흙 살리기 주제관, 기업부스, 체험·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개최 예정.
	<p>□ 인제군, 전기차 181대 보조금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 추진 (2026.02.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제군이 총 15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화물차 29대, 전기승합차 1대,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1대 등 총 181대에 보조금 지원. 전기승용차 최대 9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7800만 원, 전기버스 최대 2억 700만 원. - 다자녀 가구 최대 300만 원 추가 국비 지원, 청년 생애 첫 전기차 및 차상위 계층 국비 20% 추가 지원, 소상공인 국비 30% 추가 지원 등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신규 도입된 '전환지원금'으로 3년 이상 보유 내연기관 차량 폐차·매각 후 전기차 전환 시 최대 130만 원 추가 보조금 지급.
	<p>□ 충남도, 노인일자리 연계 자원순환 활성화 협약으로 탄소중립 기여 (2026.02.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가 홍성군, 홍성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 및 자원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노인일자리 사업을 자원순환 정책과 연계하여 노인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 환경 개선·탄소중립 기여 목적. - 참여자들은 도청 내 다회용기 수거·텀블러 세척기 관리, 홍성군 내 '클린하우스' 환경 정비 등의 업무 수행. 충남도는 정책 지원, 홍성군은 행정·재정적 지원, 홍성시니어클럽은 참여자 모집·관리 및 교육 담당. - 사업 성과 분석 후 내년에는 모든 시군으로 사업 확대 방침. 노인일자리와 자원순환을 연계한 협력 모델 구축의 의미.
	<p>□ 해남군 '탄소중립 에듀센터' 하반기 착공, 총 389억 원 투입 (2026.02.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가 탄소중립 교육시설인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 국비·지방비·민자 등 총 389억 원 투입, 부지면적 4만 9330㎡, 건축면적 4989㎡ 규모로 2028년 준공 목표.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설계 진행 중이며 한국환경보전원이 운영 예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제로에너지 건축, 녹색건축 인증 등 주요 인허가 사전 절차 대부분 완료. - 어린이 체험실, 상설전시실, 실감영상관, 교육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시설 운영으로 연간 최대 1000만 명 방문 예상. 아동·청소년 환경교육 접근성 제고와 관광 활성화·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수원시의회, 탄소중립 추진 등 시민 생활 관련 조례안 본회의 가결 (2026.02.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4건 안건 중 30건 원안 가결, 4건 수정가결. 생활임금 제도, 중대재해 예방, 탄소중립 추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내용 포함. - 본회의 후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상생구역 확대 운영, 군공항 소음 피해 해소, 도로 상 맨홀 관리, 소각장 이전 등 지역 현안과 시정 과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 -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제399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과 시민 생활 관련 안건 논의를 이어갈 예정.
	<p>□ 양주시, '30만 시민 1인 1나무 심기운동' 본격 추진 (2026.02.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주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0만 양주시민 1인 1나무 심기 운동'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 2025년 양주지역산림조합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장기 추진계획(2025~2030)에 따라 시행. - 2026년을 실행 단계로 보고 산림 연접지역, 공원·하천·도로 등 공유지 내 유휴 부지를 중심으로 식재 대상지 확정. 봄·가을철 시민 참여형 나무심기 행사 운영, 생활권·학교숲·가로수 등 유형별 맞춤형 식재 단계적 추진. - 식재 이후 풀베기,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 병행과 산림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기술 지원 추진. 도시 내 녹지 공간 확충과 탄소 흡수원 확보 목표.
	<p>□ 대전 대덕구, 지역에너지센터를 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로 명칭 변경 (2026.02.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대덕구의 대덕지역에너지센터가 대덕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탄소중립 거점 육성에 박차. 에너지 관리 중심에서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으로 기능 확대. - 탄소중립 실천연대 및 연합 활동 체계적 지원, 각 동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수행, 전문 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탄소중립 전문가 육성 인력 양성 기능 강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체험·홍보·행사 기능을 통합한 탄소중립 플랫폼 역할 수행과 대덕구 전역 '탄소중립 축제' 기획 등 주민 주도 실천 문화 확산 계획.
	<p>□ 파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 상시 모집 (2026.02.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시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신규 참여자를 연중 상시 모집. 전기·도시가스·상수도 사용량을 최근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절감 시 감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하는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제도. - 지난해 참여 시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으로 약 5593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총 1억 5천만 원 보상금 지급. 가구당 연간 최대 10만 원 보상금 수령 가능. -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가스앱 캐시'로 6월과 12월 2회 보상금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모바일앱 '카본페이') 신청 가능.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고용부 차관, AI 산업 전환 과정에서 구조조정·인력·규정 문제 동시 발생 진단 (2026.02.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포럼에서 AI 확산과 산업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조조정과 인력 문제, 인력 규정문제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며 노동시장 격차와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진단. - 청년 고용 문제를 가장 주목하는 과제로 제시하며, 기업 채용이 경력직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청년들이 일할 기회 자체에서 격차를 겪고 있다고 지적. 직업훈련과 상담을 통한 사회 연결 정책 추진 언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 연장은 인구 구조상 불가피한 과제로 거론하고, 근로시간 정책은 강제보다 유도 방식으로 추진.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제도 마련 방향 제시. <p>□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워싱턴서 첨단기술·AI 협력 강화 논의 (2026.02.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현 외교부 장관과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미국 워싱턴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진행.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관계 지속 강화 의지 확인. - 이번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는 미국 국무부가 처음 개최한 회의로, 반도체·배터리·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변화를 논의. G7과 한국, 이스라엘, 호주 등 56개국 참여. -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명. JD 밴스 부통령은 핵심 광물 우대 무역 지대 창설을 제안.
중앙부처	<p>□ AI가 전문직·IT 일자리 위협, 통계로 확인되는 현실 (2026.0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월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가 2만 1천 명 감소하여 5년여 만에 최대폭 감소 기록.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10만 명 가까이 줄어 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대폭 감소. - 국가데이터처는 기저 효과와 함께 AI 도입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분석. 회계사 시험 합격자 중 70% 이상이 회계법인에 미채용되는 등 전문직 채용 시장도 위축. - 한국은행은 지난 3년간 줄어든 청년층 일자리 21만 개 중 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라고 분석. AI와의 일자리 경쟁이 통계로 확인되는 시점에 대한 검증 필요성 제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경기도 AI국, 의회 보고자료 오류 불인정 및 절차 위반으로 질타 (2026.02.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AI국 업무보고에서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 기간이 보고자료와 협약자료 간 불일치하는 명백한 오류를 지적했으나, AI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의회 무시 태도로 강하게 질타. - 경기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관련 언론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에서 유료화가 전제된 사업을 의회에 사후 보고한 절차 위반 문제와, 공직자만 사용하는 소버린 AI 기반 서비스를 '도민 대상 혁신행정서비스'로 과대 포장한 문제 지적. - AI 학습데이터 규모가 부족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 구조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단독 추진의 한계를 언급하며, 실제 운영 성과의 체계적 검증 선행 필요성 강조.
	<p>□ 지방 활성화 위해 AI·자율주행 등 '규제 프리존' 설치 제안 (2026.02.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그룹이 5년간 270조 원 지방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과거 창조경제혁신센터·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이 호지부지된 경험에 대한 우려 제기. 기업 자율성 보장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목소리. - AI,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이 규제로 국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에서, 지방에서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다양한 시도를 허용하자는 제안. 한경협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적용 필요성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 지원하는 제도의 법제화를 약속. 경제계는 규제 해소가 포함되어야 지방 투자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전망 제시.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기간 부족 및 졸속 우려 제기 (2026.0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세대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의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졸속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의제숙의단 구성에서 산업계 과대대표 문제도 제기. -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1~2049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법 개정 시한은 2월 28일까지임. 국회 기후특위는 시한 3주 전인 2월 3일에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 - 기후소송단 참여 학생 한제아양은 “지금의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꾼다”며 미래세대 참여 필요성 강조. 기후위기비상행동 측도 공론화가 시민을 거수기로 만드는 형식적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
국가기관	<p>☐ 월악산국립공원, 유아 대상 어린이 숲학교 운영 (2026.02.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3월부터 인근 유치원·어린이집 4~7세 유아 대상 '월악산국립공원 어린이 숲학교'를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을 받은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과 생태 보호 교육. - '나무는 참 좋은 친구야!', '지구가 아파요!',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동물 친구들' 등 유아 눈높이 주제 구성. 놀이·관찰 중심 체험활동으로 학습 효과 제고. 3~10월 월 1회, 총 8차시 과정, 참가비 전액 무료. - 총 9개 반 선착순 모집(2월 6~13일). 유아기부터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생태적 가치관 형성 기여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중진공,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6.0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월 4일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 탄소중립 전략수립부터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실시설계 컨설팅, 설비도입까지 패키지 지원. - 일반 트랙(보조율 50%)과 고도화 트랙(보조율 70%) 모두 기업당 최대 3억 원 지원. 탄소 다배출 업종과 산업단지 비입주 기업 등에 가점 부여. 올해 산업단지 비입주 기업 우대 제도 신설. - 에너지 절감형, 공정 최적화형(AI 기반 제어 시스템 등), 배출 진단형, 신재생에너지형 등 4개 유형으로 지원 설비 구분. 중진공 ESG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지방기관	<p>□ 서울시교육청, 전 학교 '2026 탄소중립 실천' 추진 및 자가진단 도구 도입 (2026.02.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6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을 추진하며, '학교 탄소중립 실천 자가진단 도구'를 새롭게 도입. '진단→계획→실천→환류' 방식으로 운영하여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실천 기반 마련. - '서울형 탄소중립 실천 중점 학교' 44개교를 지정하여 맞춤형 교육 자료 제공 및 전담 연구원 월별 방문 컨설팅 실시. IoT 기반 냉난방기 관리와 연계한 실시간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 - 2025년 탄소제로 실천 중점 학교 33교 운영 결과, 전년 대비 약 68,189kgCO₂e 온실가스 감축 달성. 학년말 실천 사례 공모 및 우수 학교 포상, 나무 심기 체험 행사 기회 제공 등 참여 확산 방안 추진.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금융위, 설 연휴 AI 음성 변조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발표 (2026.0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기관 사칭, 대출 빙자, 악성앱 설치 등 최신 수법 대응요령을 담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발표. AI로 자녀 목소리까지 조작해 금전을 요구하는 고도화된 수법 주의 당부. - 수사기관 사칭 전화는 즉시 종료 후 112 등으로 확인, 숙박업소 이동 요구는 외부 차단 시도이므로 즉시 신고, 악성앱·출처 불명 URL 클릭 거절, 타인 계좌 송금 요구 시 이체 중단 등 구체적 대응 요령 제시. -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안심차단서비스' 설치 권장. 금융위 관계자는 수법을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피해 의심 시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도움 요청 당부.
국가기관	<p>☐ 한국거래소, 창사 이래 첫 AI 스타트업 '페어랩스' 인수 (2026.0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거래소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페어랩스'를 67억 원에 인수하며 창사 이래 첫 스타트업 인수 사례 기록. 전사적 AI 전환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 1년간 30여 개 후보 기업 검토 후 최종 선정. - 2020년 설립된 페어랩스는 뉴스·공시·IR 및 ESG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를 AI로 고부가가치 정보로 가공하는 기술 보유. 전문인력과 기술 인프라 보강을 거쳐 스타트업 특유의 혁신적 기업문화 유지 계획. - 지수·데이터 사업 등 기존 정보사업의 기술 경쟁력 고도화와 시장 관리 업무 전반에 AI 기술 단계적 적용 방침. 중장기적으로 핵심 기술 R&D와 새로운 수익 창출 조직으로 성장 지원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한수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년 연속 수상 (2026.0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능률협회 주관 '2026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공공부문(에너지 분야)에 2년 연속 선정.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평가. - 지난해 원전 이용률 84.6%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 달성. 약 889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최대 3조 원 규모 일감 공급과 중소기업 수출 실적 1조 5천억 원 달성에 기여.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선도 역할 지속 방침.
	<p>☐ 동반성장위원회, 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3년 연장 (2026.02.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대기업 9개사, 한국화학산업협회와 상생협약을 3년 연장. 2022년 체결 협약을 이어 탄소중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협력 지속. -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LG화학 등 참여. 대기업은 고부가·고품질 제품 제조에 집중하고 물리적 재활용 시장 진입과 설비 확장 자제, 지분 투자 시 경영권 미행사 범위에서 투자. - 중소기업은 설비 고도화와 고순도 재활용 제품 R&D 추진,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확보 협력.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탄소중립 도달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필수”라고 강조.</p>
대학교	<p>- 해당 없음</p>
해외	<p>- 해당 없음</p>
기타	<p>□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 3주 남기고 공론화 본격 시동 (2026.02.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기후특위 소속 공론화위원회가 2월 3일 출범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본격 착수. 이창훈 전 KEI 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민대표단 330명 선정과 의제숙의단 33명 구성 등 준비 절차 진행. - 2024년 8월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시한(2월 28일)에 맞추지 못하고, 4~5월 중 공론화 결론 도출 및 법 개정 추진으로 일정 조정. 시민사회는 졸속·부실 논의 우려를 제기하며 충분한 숙의 기간과 투명한 자료 공개 요구. -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이 핵심 의제이며, 산업계 이해 과잉 반영 방지, 미래세대·노동자·농민 등 기후위기 당사자 참여 보장, 의제 설정 과정의 민주성 확보 등이 주요 쟁점. <p>□ 전국 기초지자체 40%, 탄소중립기본계획 '낙제점' 평가 (2026.02.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A등급 11곳(4.8%), D등급(전면 재설계 필요) 87곳(38.5%)으로 대다수 계획이 형식적 수준에 머무름. - 기초지자체 2030년 평균 감축률 25.3%로 국가 NDC 추정치 30%에 미달. 대도시 33.4% 대비 농어촌 15.7%로 약 18%p 격차 확인. 수송 부문은 국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3%에 그침. - 2025~2029년 연평균 감축률 2.2%에서 2030년 마지막 해에 9.3%로 급등하는 후행적 행태 확인. 총배출량 기준 목표 산정, 자치단체 유형별 성과관리지표 수립, 기후대응기금과 연계한 실질적 이행 동력 확보 등 제안.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하나은행, ESG 인증 AI·SW기업 대상 최대 2% 우대금리 대출 출시 (2026.0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은행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AI·SW기업 ESG경영 진단서'를 발급받은 기업 대상으로 최대 2.0% 우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 대출 한도 제한 없이 운전자금·시설자금 모두 신청 가능. - KOSA의 ESG 진단은 i-ESG를 통해 AI·SW 산업 특성에 맞춰 개발되었으며, AI 윤리,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정보보안 및 디지털 책임성 등 AI·SW 기업 특화 요소를 종합 평가. - 하나은행은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KPI 항목을 개편하고, 'Core 첨단산업' 업종에 기업대출 신규 공급 시 실적 가중치 적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진행적 역량 집중.
<p>민간기업</p>	<p>☐ 디플리, 호성전기에 음향 AI 솔루션 '리슨AI' 공급 (2026.0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향 AI 솔루션 기업 디플리가 글로벌 블로워모터 생산 1위 기업 호성전기의 자동차 액추에이터 생산 라인에 '리슨 AI' 공급. 연간 500만 개 규모의 전동 액추에이터 생산 전 라인에 적용하고, 신공장에도 확대 예정. - 기존에 사람이 직접 귀로 듣고 판별하던 품질 검사를 AI로 자동화. 30만 개의 모터 구동음 데이터를 학습해 양산 라인 테스트 1개월 만에 99% 이상의 유효성 입증. 별도 검사실 이동 없이 생산 라인에서 즉시 검사 가능. - 디플리 대표는 모빌리티·로봇 등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모터 기반 액추에이터 생산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를 전망하며, 미세한 품질 차이를 소리로 잡아내 제품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힘.
	<p>☐ 농협은행장, 디지털·AI 혁신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강조 (2026.02.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2026년 경영협약식에서 “디지털·AI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경영목표로 Agentic AI 전환 가속화, 영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소비자권의 우선 경영 실현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결의. -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품격 있는 금융 실현을 위한 전 부문의 실천 의지 공유.
대학교	<p>□ 대구대, 전교생 대상 유료 생성형 AI 무상 이용 'AI 통합 플랫폼' 도입 (2026.02.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대학교가 신입생 포함 전교생과 교직원이 GPT-5, 제미니(Gemini), 클로드(Claude) 등 최신 유료 생성형 AI 모델 6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AI 토큰 관리 통합 플랫폼' 도입. - 교내 통합인증(SSO) 시스템 연동으로 학번 로그인만으로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수강 과목과 전공 특성에 맞춰 AI 사용량이 자동 배정되는 '토큰 기반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 - 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관하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AI 활용 실무 역량 선제적 확보가 목표. 팀 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창업 활동 등 실무 현장에서 AI 직접 활용 환경 조성. <p>□ 청주대 RISE사업단, '2026 AI 신기술 콘텐츠 컨퍼런스' 성료 (2026.02.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 충북생활연구소 주관 '2026 AI 신기술 콘텐츠 컨퍼런스'가 청주 엔포드 호텔에서 이틀간 개최. 충북 콘텐츠 창작자·산업 종사자·대학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 마무리. - 영화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이 AI를 통한 창작 영역 확장을 강조하고, 생성형 AI 활용 실무 워크플로우 시연도 진행. '충북형 신기술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열띤 패널 토론과 네트워킹 진행. - 충북 우수 IP 발굴과 AI·신기술 결합 차별화 콘텐츠 전환을 위한 대학-지자체 협력 체계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콘텐츠 중심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 강화 방침 수립.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p>□ 생성형 AI 유료 구독자 2년 만에 5배 이상 증가 (2026.02.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국민카드 분석 결과, 2025년 4분기 기준 생성형 AI 구독 이용 고객 수가 2024년 1분기 대비 413%, 이용 금액은 516% 증가. 텍스트 기반 서비스가 고객 수 491%, 금액 609% 증가로 성장 주도. - 텍스트 기반 구독 고객 연령대별 비중은 20대 37%, 30대 32%, 40대 18% 순으로 젊은층이 주축. 2개 이상 서비스 구독 고객 비중이 4.9%에서 6.5%로 증가하며 복수 서비스 이용 확대. - 유료 결제 고객 중 60%가 4개월 이상, 21%가 10개월 이상 장기 구독을 유지하여 생성형 AI가 일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는 양상. 업무 효율성과 직결되는 구독 서비스로의 전환 가속화.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